

인기소설가들의 희곡집 나란히 출간 화제

이문열의 《여우사냥》, 장정일의 《긴 여행》 등 ... 희곡역량도 뛰어나다는 평가

대중들의 인기를 누리면서 관심을 집중시켜온 인기소설가들이 비슷한 시기에 희곡집을 출간, 문단과 연극계에 적지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심을 끌고 있는 두권의 희곡집은 국내 문단의 대표작가인 이문열의 《여우사냥》(살림)과 이른바 신세대 작가군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장정일의 《긴 여행》(미학사).

이들의 희곡집 출간은 인기작가들의 희곡 작업이라는 점에서 희곡집은 팔리지 않는다는 서점가의 불문율을 이들이 깰 수 있을지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무대 공연을 전제로 씌어지는 희곡의 특성상 이들 작품이 연극무대에서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 여부에도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즉 희곡이 지닌 상연성(연극성)과 내용성(문학성) 조화를 직접 확인해볼 보기도 문 계기가 되고 있다.

희곡과 뮤지컬의 요소가 결합

이문열의 희곡 《여우사냥》은 작가가 최초로 집필한 희곡작품으로 1백년 전 일본 낭인들이 저지른 '명성황후 살해사건'을 다루고 있다. 광복 50주년과 살해사건 100주년을 맞아 출간된 이 희곡은 작가가 4년에 걸쳐 국내외를 돌아다니며 발굴해낸 자료를 바탕으로 써 현실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래 뮤지컬로 기획되었던 이 작품을 쓰기 위해 작가는 세계 각국의 대형뮤지컬 순례를 다녀오기도 했다.

이 작품은 작가의 말대로 "본질적으로는 문학성을 중시한 '읽는 희곡'이면서, 운문(韻文)의 음악성을 차용한 뮤지컬이기도 하고, 전통적인 형식 기준으로 보면 차라리 시극(詩劇)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생동감 넘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접근 방식과 표현력이 희곡 전문가들이 쓴 역사물보다 뛰어나다"는 중평을 받고 있는 이 작품은 약간의 각색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초부터 《명성황후》라는 제목으로 무대에 올려져 공연작품으로서 평가를 받게 된다.

병적인 세계관의 탁월한 연극적 형상화

장정일의 희곡집 《긴 여행》에는 그의 희곡대위작이자 87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희곡



문단의 대표적인 작가 이문열의 《여우사냥》과 신세대 작가군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장정일의 《긴 여행》 등 인기 소설가들이 비슷한 시기에 희곡집을 출간, 문단과 연극계에 적지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왼쪽부터 이문열·장정일·최인훈·주인석.

부문 당선작인 〈살내극〉과 지난해 말 발표된 동명소설을 희곡화한 〈너희가 재즈를 믿느냐〉를 비롯 〈어머니〉, 〈긴 여행〉 등 4편의 희곡이 실려 있다.

장정일의 희곡들은 그의 소설과 마찬가지로 도착된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세계관을 작품 속에서 구현해내면서 현대사회에 대한 반기를 들고 있다는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의 작품은 연극적인 요소에서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극작가 박조열씨는 장정일의 희곡작품들이 "극소화된 무대 장면, 등장인물의 감정을 탈색시킨 투명한 대사, 충격적인 상황을 하나의 게임으로 소격화시킨 연극구성 등 국내 극작계에서는 찾기 어려운 연극감각을 표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 희곡집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긴 여행〉은 연출가 김아라씨와 공동작업을 거쳐 〈이디푸스와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무대에 올려져 95년 서울연극제에서 희곡부문 대상을 차지했으며, 〈너희가 재즈를 믿느냐?〉는 현재 공연중이다.

역량있는 작가들은 희곡도 수준작

소설과 희곡작업을 병행한 대표적인 작가는 최인훈이다. 그는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 〈동동 樂浪동〉 등의 희곡을 발표해 "소설의 대가답게 희곡의 문학성 역시 탁월하다"는 찬사를 받았고 7편의 희곡을 묶은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문학과지성사, 최인훈전집 제10권, 1979) 등의 희곡집을

출간한 바 있으며 곧이어 또다른 희곡선집이 출간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최근 소설집 《검은 상처의 블루스》를 펴낸 주인석씨도 희곡작업에 열성적인 작가로 손꼽힌다. 그는 희곡집 《통일밥》(제3문학사, 1990)을 펴냈고, 황지우의 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를 희곡화하기도 했다. 관념적인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희곡적 물음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의 작업은 희곡의 문학과 공연성을 잘 배합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증견작가 황석영·박범신씨 등도 자신의 소설을 희곡화하여 책으로 출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소설작업에서 역량을 인정받은 작가들은 희곡 역시 뛰어나다"는 것이 최근 발간된 두권의 희곡집을 바라보는 연극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연극평론가 김미도씨는 "이번에 출간된 희곡 속에서 표출되는 이문열씨의 탁월한 서사성과 장정일씨의 동시대를 읽어내는 감각은 그 어떤 희곡작가들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하면서 "희곡이 문학의 한 장르이면서 소설과 밀접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설에서의 역량이 희곡에서도 여실하게 발휘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희곡이 지닌 연극성과 문학성이 고대 그리스극 이후 현재까지 시대, 사회환경, 연극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온 것을 감안할 때 이같은 소설가들의 희곡집 필 경향은 90년대 들어 불고 있는 문학의 장르해체 분위기와 맞물려 더욱 활발하게 가시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허 연 기자

화제의 책

월북작가의 대표 희곡모음

장혜전 엮음 《함세덕 희곡 선집》

유치진과 동시대인으로서 '극작술의 귀재'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월북작가라는 이유로 상당기간 묻혀 있었던 함세덕의 월북 이후 작품을 비롯한 대표희곡을 수록한 책.

1988년 해금조치 이후 활발하게 연구되는 극작가 중 하나인 함세덕은 그동안 논문에 의해서는 여러번 소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초기 작품만을 다루어왔다. 그러나 이번 그의 희곡선집은 전문이 일본어로 씌어졌던 그의 친일극에서부터 월북 이후의 작품들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들 위주로 묶었다.

특히 일본어로 씌어진 그의 희곡들을 번역 수록한 작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자료적 가치가 있는 근현대 희곡을 새롭게 발굴했다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

〈추장 이사베라〉 〈에밀레중〉 〈마을은 쾌청〉 〈소위 대통령〉 〈기미년 삼월 일일〉 〈고목〉 〈사람들〉 등 7편의 희곡작품과 〈함세덕 희곡의 변모과정〉이라는 제목의 소론을 수록하고 있다. (326-0091)

시인사 / A5신 / 416면 / 12,000원